

지구촌에 펼쳐지는 '우리 문학' 한마당

문예진흥원·대산재단 등 번역지원 활발... 번역자 양성이 시급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돼온 해외 번역출간 작업이 1백권을 돌파했고 대산재단의 번역지원사업도 4년째를 맞고 있다. 번역원 설립이 추진되고 번역금고 조성사업이 계획되는 등 우리 문학을 해외에 알리려는 노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예진흥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작품들.

문학의 해를 맞아 우리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80년부터 문예진흥원(원장 문덕수)의 지원으로 추진되어온 한국문학 해외출간이 1백권을 돌파했고, 민간재단으로서 93년부터 독자적으로 해외출간사업을 시작한 대산재단(대표 신창재)도 오랜 준비기간 끝에 성과물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2개 언어권에서 우리 문학 출간

우리 문학이 해외에 번역·소개된 것은 1892년 춘향전의 불어번역(홍중우)을 시발로 1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학술 차원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한두권씩 번역됐던 것들로서, 한국문학의 해외번역이 궤도에 오른 지는 약 15년에 불과하다. 우리 문학이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은 지난 80년의 일이며, 이때부터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한국문학작품의 해외 번역출간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황순원의 단편소설선집 《별》이 영어로 번역되어 홍콩에서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황진이, 허균 등의 고전에서부터 한

용운, 이상, 김광규, 서정주, 박두진, 정지용, 김승옥, 이규영, 최인호, 이문열 등의 현대문학까지 총 104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외출간됐다. 장르별로 보면 소설 67권, 시 29권, 희곡 3권, 기타 5권이며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2개 언어권에 걸쳐 출간이 이루어졌다.

93년에 민간재단이 가세하여 번역출간사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은 활기를 더했다. 대산재단은 번역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1천만원씩 총 1억원에 달하는 번역지원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번역이 완료된 후 출판할 때까지 별도로 출판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어권에서 출판, 보급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정주의 《서정주 시선》,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 등이 3개 언어권에서 출간됐다.

문학의 해를 맞아 이들 두 단체는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고 각종 지원과 연수를 늘리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문예진흥원은 해외문인 초청 및 방문, 국제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권에 달하는 신규 번역작업에

착수했고 현재 25건의 번역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양귀자의 《원미동사람들》, 임철우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윤홍길의 《에미》, 김우창 평론집 등이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산재단 역시 《박완서 중단편 소설선》, 이청준의 《흰옷》,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 이형기의 《죽지 않는 도시》 등 20여건의 번역작업을 진행중이며, 해외 한국문학 전공자에게 연구비 및 도서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출간이 해당어권어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학 독자층을 국제화한다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번역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학은 문화상품인 까닭에 단순히 마케팅에만 의존해서 광범위하게 보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우수한 번역자들을 육성·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우수 번역자 양성 관리 시급해

문예진흥원의 번역출판담당 박상언씨는 “우리 문학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 자체의 내적 성숙도 중요하고 출판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

한 것은 번역자 양성이다”고 강조한다. 제2의 창작이라 불리는 번역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양국문화·문학에 조예가 깊은 유능한 번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예진흥원에서는 2년전부터 신진번역가 연수사업을 펼치고 있고 대산재단에서도 번역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문학을 공부했다가도 다른 길로 떠나버리고 있다. 이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해외 대학 중에서 한국문학 관련 연구·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해외 한국학 관련학자들이 여러 경로로 지원을 받아온 데 비해 한국문학 번역자들은 번역료 이외에는 혜택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므로써 외국 우수 대학에 한국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연구·교육기반의 확충을 통해 한국문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작품들

(’95.1.1~’96.1.30)

나라	제목	언어	출판사	저자	역자
영국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현대문학사화집)	영어	Kegan paul Int'l	김유정 외	정중화(편집)
러시아	한국단편소설선 II권	러시아어	베찌르부르크 중앙학센터	이호철 외	수하초프 외
페루	La Casonaa de los Patios (마당 깊은 집)	스페인어	Pontificia Univ. Catolica del Peru	김원일	고혜선
프랑스	A la façon des années soizante (60년대식)	불어	Actes Sud	김승옥	Roger Leverrier
영국	The Poet (시인)	영어	The Harvill Press	이문열	정중화, Anthony Teague (공역)
프랑스	Le Nain(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불어	Actes Sud	조세희	최현무, Patrick Maurus (공역)
독일	Meine Mutter war eine Korea-Nutte (이미 이름은 조센베였다)	독어	Kiro Verlag	윤경모	Helga Picht
프랑스	Le Fils De L'homme (사람의 아들)	불어	Actes Sud	이문열	최현무, Patrick Maurus (공역)
프랑스	Le rêve d'un homme abattu (쓰러진 자의 꿈)	불어	Gallimard	신경림	최현무, Patrick Maurus (공역)
프랑스	La Chienne de Moknomi (목님이 마을의 개)	불어	Zulma	황순원	최미경, 고광단, J.N. Jutter (공)
프랑스	Anthologie de dix nouvelles contemporaines coréennes. I (한국 젊은작가 소설선, I권)	불어	Philippe Picquier	최성각 외	이병주 외
프랑스	Anthologie de dix nouvelles contemporaines coréennes. II (한국 젊은작가 소설선, II 권)	불어	Philippe Picquier	김남일 외	이병주 외
미국	Singing Like a Cricket, Hooting, Like an Owl(이규보 시선)	영어	Cornell East Asia Program	이규보	Kevin O'Rourke
영국	Poems of a Wanderer (서정주 시선)	영어	Dedalus	서정주	Kevin O'Rourke
프랑스	La maison a la Cour Creuse (마당 깊은 집)	불어	L'HARMATTAN	김원일	송영규 즈느비에프 탐 박
독일	Die träumende Brutmaschine (꿈꾸는 인큐베이터)	독일어	Secolo	박완서	채운정 R. Werning

수한 번역자를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외교포 2세, 3세들을 중심으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거나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번역작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가 번역원 설립을 추진하고 문체부가 1백억원 규모의 번역금고(가칭)를 조성하여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각종 사업에 후원하기로 나서는 등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가치 아래 활발한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어 일단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긴 안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번역출간사업을 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문학을 출간해줄 출판사를 찾지 못해 대학출판사에 의존하는 식의 구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자한 노력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한동림 기자

김한길님과 대화
주최: 서울한문대연구소 | 일시: '93.8.13 | 장소: 경향안민유림시

강사와 학생간의 깊은 우대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출판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있으며 교육진행중 학생들과 담임강사가 함께하는 1박2일 워크숍을 통하여 편집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편집교육을 국내최초로 본격화시킨 교육기관
1987년 출판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편집 실무교육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편집실무교육안과 교재개발을 완료하여 1988년 3월 국내 최초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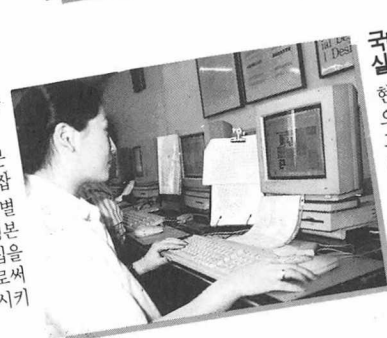
각 반별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교육내용 중 때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제책소, 인쇄소 등을 견학하여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립하여 현장적용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약한 문구는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이 안장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생의 95%가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과정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지, 단행본 등 개별 과정별로 시판중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집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실무교육 실시
현직출판계 편집자나 처음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원 정규과정중 기본과정 이수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원스쿨

문의(代) 672-1841,2 FAX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